

Session 08 영광의 통로 : 역동적인 수렴(하나 됨) (The Corridor of Glory : Dynamic Convergence)

I. 하나님의 주요 계획 :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되게 하심

그 뜻의 비밀(감추어진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 A.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합치심으로 온 땅에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두 가지의 영역이 하나로 맺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들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 B. 새 예루살렘이 두 단계에 걸쳐서 내려오게 됨으로 영적인 영역과 물질 영역은 하나가 된다.

1.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첫 번째 단계 :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는 부분적이지만 본질적인 단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0)

2.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두 번째 단계 : 천년 왕국 이후에 있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단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1-2)

- C.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첫 번째 단계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 위로 다가오며, 아직 이 땅 위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땅 위에 있게 된다.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음으로 인해,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다른 존재라는 데에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이유가 있다.

1. 땅의 왕들이 천년 왕국 때에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 21:24)

2.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앞서기가 있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3. 천사들이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1:12, 22:14-15)

4. 새 예루살렘이 온 땅을 비춘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 21:24)

5.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넓이는 약 25km² 정도이다(겔 48장).

D. 요한계시록 21-22장의 개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두 번에 걸쳐 내려오는 것과의 관계

1. 계 21:1-8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놀라운 영적인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일은 계시록 20장 이후에 시간 순서대로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내려옴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계 21:9-22:5은 시간과 영원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영원과 일시적인 측면 두 가지 다를 내포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연대기적인(시간 순서대로의) 구성이 아닌 삽입 구절에 속하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천년 왕국이 생겨나고 있는 시간대에 속한 일이다. 이는 영원만을 말하고 있지도, 어느 한 순간의 일만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계시록 21:9-22절은 그 도성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21:23-22:5절은 천년 왕국 시대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E. 성도들은 천년 왕국의 땅에서 다스리지만(마 19:28; 눅 22:29),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만,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의 일들은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는 마치 미국의 상원의원이 그들의 집이 있는 주(州)에서 살고,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II.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 (땅과 하늘에 있는) 두 가지 차원

- A.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영광으로 오시며 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예수님의 재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

25:31)

- B.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땅에서의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렘 3:17)

- C. 예수님의 보좌는 천년 왕국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예수님)이 자기 곳(새 예루살렘)에서 돌아나서(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성전에서 섬기는)이 자기 위(보좌)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슥 6:12-13)

- D.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는 천년 왕국 성전의 지성소에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천년 왕국 성전)으로 들어가고 ... 6 들은즉 누구인지 전(지성소)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7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 (겔 43:4-7)

- E. 예수님의 보좌는 또한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는 명확하게 새 예루살렘에 있고, 또한 명확하게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3)

III. 시온 산 :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함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 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약 1,500마일 = 2,400km)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 21:10-21)

- A. 새 예루살렘은 약 2,400km 높이를 가지고 있다. 대기권의 높이가 1,000~1,200km인 것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에베레스트)이 해면고도로 약 8km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으며, 바다의 가장 깊은 곳도 약 12k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B. 천년 왕국 예루살렘은 산에 있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천년 왕국 예루살렘이 땅의 모든 산보다도 높이 올려진(사 2:2, 미 4:1) 하나님의 산에 있음을 묘사한다(겔 40:2; 17:22; 20:40). 이 묘사는 현재 예루

살렘에 있는 언덕 정도의 지형(해면고도 2,500ft = 760m)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겔 40:2)

C. 여호와와의 전의 산은 두 예루살렘을 잇는 영광의 통로를 가리킨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1-3)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을 3:17)

IV.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시 37:29; 78:68-69; 104:5; 105:10-11; 125:1-2; 왕상 8:13; 9:1-3; 왕하 21:7; 대상 15:2; 23:25; 28:8; 대하 7:16; 20:7; 30:8; 33:4,7; 사 60:20-21; 겔 37: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25-28)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대상 23:25)

V. 영광의 통로 : 역동적인 수렴(Converge)

수렴된다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치점을 향해 한 군데로 모임을 뜻한다

A. 전제 : “영광의 통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명확하게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지성소)과 새 예루살렘에 있으며, 이 둘은 명확하게 하나의 위대한 실체라는 개념 하에 세워진다. 즉, 예수님의 보좌는 명확하게 이 땅에도 있으며 하늘에도 있으므로 이 둘은 하나의 보좌이다. 두 예루살렘이 하나로 연결됨을 위해 “영광의 통로”가 세워지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차원의 목적이 역동적으로 수렴된다.

B.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은 어디로 내려오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

시는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성전이다.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인가 아니면 둘인가?? 이에 대한 답은 “그 령다”이다. 내 의견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광대한 영광의 통치 단지로서 새 예루살렘의 그분의 보좌는 “북쪽의 끝”에 있으며, “남쪽의 끝”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 둘 사이에 “영광의 통로” 가 존재하게 된다.

- C. 수렴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영역들(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연합된 하나의 실체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D. 성경 말씀은 두 영역이 하나로 수렴되는, 하늘의 영역들과 천년 왕국에 있는 영역들(예루살렘, 지성소, 성산, 에덴 동산,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이 하나로 되는 부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 E. 새 예루살렘은 각 변의 길이 2,400km가 되는 정육면체 구조가 된다(아마도 산과 함께 그 크기는 압도 적인 크기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인 지성소와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천년 왕국 예루 살렘 역시 두 가지 측면이 다 드러나지만 새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적은 양으로 드러날 것이다.
- F.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은 모든 도성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지만(심지어 지옥에서까지도), 그분의 즉각적이며 명백한 임재는 그분의 창조물에 의 해 뚜렷이 구별되며, 손에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경험되며 분별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 139:8)

- G. 구약에서, 그분의 계속적이며 즉각적이고 현저한 임재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 곳, 장막 혹은 성전의 지 성소에서만 풀어졌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언자나 왕들에게 임했다. 전체적인 관점에 서, 이는 그분의 영광의 풀어짐의 단지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H. 지성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명백하고도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영원한 도성)는 초자연적인 다이아몬드의 빛과 같은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의 파도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곳이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다이아몬드)과 수정같 이 맑더라 (계 21:10-11)

- I. 천년 왕국의 지성소는 이러한 부분들로 채워지게 된다. 천년 왕국의 지성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항상 있는 충만한 영광의 분량이 부어지며 표현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지구상의 그 어떤 곳들보다 독 특한 곳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아직 죄가 존재하는 지구 위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초월적인 정결함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땅과 맞닿게 되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위험한 일이 된다 (출 33:20-23; 19:21; 20:19; 창 32:30; 사 13:12-22; 계 22:4).

또 가라사대 네(모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0)

- J.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을 때 이사야는 성전과 함께 요동할 수밖에 없었다. (에스겔이 예언한대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성전의 왕좌에 앉으실 때, 모든 것들이 진동하며 떨게 될 것이다.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 4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사 6:1-5)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천년 왕국 예수님의 성전)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 (겔 43:7)

- K. 천년 왕국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천년 왕국의 지구는 그 충만함의 부분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의 지구는 계시로 가득 차게 되지만, 영광의 온전한 충만한 분량까지는 아니다.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지성소는 사도행전 2장에 급하게 임하신 영광의 바람과 물결과 같은 충만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성소가 지성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L. 온 땅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계시의 영은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대하고 큰 분량으로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의 임재의 충만함은 새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합 2:14)

- M. 죄가 완전하게 소멸해버림으로 인해, 새 땅은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민 14:21)

VI.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그리고 에덴 동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1-3)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 3:22)

그(천사)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 ...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 4 다시 일

천 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일천 척을 척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그 물이 창일하여 해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 7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천사)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사해)에 이르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1-12)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겔 36:35)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 27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 29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파종할 좋은 땅, 기름진 옥토)을 일으키리니 ... (겔 34:26-29)

- A. 에덴 동산 (겔 34:26-29; 36:8-11,30-35; 47:6-12; 사 35:1-8; 창 3:22; 말 4:2; 계 22:1-3)
- B. 생명수의 강은 위의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열방의 치유를 위해 천년 왕국 성전을 통해 흘러나 가게 될 것이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하나의 실체가 두 가지로 표현된 것으로서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생명수의 강은 생명나무의 생명의 원천이며, 또한 생명나무는 그 과실을 먹는 자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 생명수의 강은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체에게 직접적인 삶의 원천이 된다.
- C. 생명수의 강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에, 열매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12절). 사해(8절)는 매우 많은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바닷물은 5%, 사해는 25%)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데, 생명수의 강의 초자연적인 특성들로 인해 사해의 물들은 소성될 것이다(47:9-10). 이 생명수의 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흐르게 됨에 따라, 나무들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닌 열매를 맺게 된다(12절). 생명수의 강은 황폐해지고 버려진 광야와 사막을 변화시키게 된다(사 35:1-8). 이 강은 에스겔서 47:1-12절 말씀에 표현된 부분들을 성취하는 실제적인 강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강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기도 하다. 이는 지구상의 초목과 식물들의 회복과 변화(롬 8:19-23; 사 11장, 35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된다.
- D. 사막화된 지역에 생명을 선사할 것이다. 이 강은 얼마나 길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보다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4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 35:1-6)

- E.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 성전(겔 47장)의 역동적인 수렴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강은 땅의 열방들을 지나며 치유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47장의 물은 실제적인 강이다. 이것이 연못이나 샘물이 아니라 강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많은 도시와 나라들로 흐르며 모든 곳들을 동일한 실체로 연결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나일 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으로 4,000마일-6,400km-이 넘으며 동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북부 이집트의 지중해까지 동일한 물을 전달한다) 이 생명수의 강에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실체들이 담겨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통로”를 지나,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를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는 역동적인 수렴의 신비한 측면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F. 생명수의 강은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를 내려치는 사건에서 예언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그 근원이 땅에 있지 않은, 생명수의 강에 대한 명백한 예언적인 그림이다. 대략 3백만 명의 사람들과 생축들까지 이 돌에서 흘러나온 물로 매일 목을 축였다. 우리는 바위에서 흘러나와 이스라엘을 위해 공급된 이 강이 얼마나 길게 흘러갔을지 상상만을 해볼 뿐이다. 여기서의 이 바위는 천년 왕국 보좌의 예언적인 상징이다.
- G. 처음에는 모세는 반석을 내리치면 되었다(출 17:5-6). 그 후에, 그는 그것에 대해 명하는 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리쳤다(민 20:7-11). 바울은 반석을 두 번 내리침으로 물이 나오도록 한 일이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해석했다.¹⁾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4)

VII. “영광의 통로”는 거룩한 구름, 연기 그리고 빛나는 화염을 포함한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사 4:5)

- A. 시온 산 위에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서게 될 것이다. 이사야에 의해 밝혀진, 천년 왕국 예루살렘 위에 임할 영광의 세 가지 독특한 측면은 구름, 연기, 화염과 같은 영광이다. 나(마이크 비클)는 이 “통로”가 하나님의 무겁고, 명확한 임재의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하나의 보좌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서 연기, 구름 그리고 화염에 대해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슥 2:5)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 8:4)

1) 역자주 : 반석에서 물이 넘침으로 모든 사람들과 생축들이 충만하게 목을 축이게 되는 것은, 구약 뿐 아니라 신약까지 꿰뚫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역할을 상징하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모세가 내리침을 통해 물이 나오도록 한 행동은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대를 관통하여 나타내실 거룩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일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 15:8)

- B.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현재의 하늘(Heaven)이 그렇듯이 특정한 모양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하늘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과 연결된 천년 왕국 성전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성전에는 하늘의 성전의 연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연기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에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스가랴는 불이 천년 왕국 예루살렘을 두르게 될 것을 예언했다. 나는 이 불의 벽(불 성곽)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above) 수직으로 선 것일 뿐만 아니라(실린더 모양), 도성을 원형으로 둘러싼(around) 수평적인 구조 역시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예루살렘) 사면에서(around)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10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슥 2:5,10)

- C. “영광의 통로”는 예수님의 전차-보좌(겔 1장)가 그렇듯이 이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의 중대한 시간대에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동하시거나 영광의 연기 속에서 이동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분은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는 구름을 타고 돌아오실 것이다. 엘리야는 불의 전차(불수레)를 타고 이동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왕하 2:11)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눅 21:2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 26:64)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예수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 1:9)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두 증인)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 11:12)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 D. 에스겔서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이동 수단을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whirlwind, 회오리바람)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 15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예수님의 전차-보좌의)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지 않고 행하며 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20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의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21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 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 24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겔 1:4-26)

- E. 영광의 연기와 영광의 구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화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동 방법 중의 하나가 있다. 이는 연기와 구름과 불이 시온산 위에 덮이는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며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실제적인 불이 벽처럼 둘러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명백하게 임할 증거 중의 하나이다. 이는 “영광의 통로”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출 40:34-38)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민 9:15-16)